

장흥군,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

우량암소의 다산 유도 위한 장려금 지원

2022년까지 우량암소 1,000두 보유 목표

장흥군은 고능력 암소 생산 장려와 보전을 통한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장흥 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육성하기 위해 '우량암소 생산 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온 우량암소 생산 장려 지원 사업은 장흥에서 출하한 한우의 등급 정보를 산출하고, 고등급(1+등급 이상)의 한우를 낳은 우량암소 사육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산 유도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기반으로 조성하고, 혈통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려금은 1++A, 1++B, 1+A, 1+B등급의 한우를 낳은 우량암소 사육농가에 두당 3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2019년도에는 360농가 565두의 우량암소에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우량암소 생산 농가에게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우량암소의 혈통 보전 및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축산사업소장은 "장려금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로 번식수



농가에는 우량암소의 다산을 유도하고, 비육우 농가의 경우 우량송아지 확보를 통해 고등급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우량암소 보유

1,000두를 목표로 장흥한우가 전국 최고 명품한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위지훈 기자

한국민화뮤지엄, 2019 공모사업 교부액 최고치 갱신

2015년 5월 2일 강진군 청자촌에 개관한 한국민화뮤지엄(관장 오석환)은 2019년까지 누적 관람객 20만여 명이 방문하면서 고려청자박물관과 함께 지역의 대표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2018년까지 연 평균 6~7천만 원의 외부 공모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강진군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사용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총 1억3천5백만 원의 외부 공모사업 예산에 최종 선정되어 강진군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향유 기회 증대에 기여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강진의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대량으로 하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운영 이외에도 보훈가족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문화프로그램》, 강진읍 상인 대상의 《민화가 가득한 우리 가게》, 대구·칠량·마량면민의 이야기를 담기 위한 《민화와 함께 하는 나의 이야기》,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강진군민의 문화예술교육 제고에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민화뮤지엄은 개관 때부터 각 특별전마다 약 2천만 원 내외의 소요 경비 일체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층 기획전시실에는 《민화, 그리고 여정》, 《조선왕실, 그 영롱한 빛을 들여다보다》, 《제5회 대한민국민화대전 수상작

특별전》, 《온고지신》을, 그리고 2층 생활민화전시실에는 《민수회 기증작》, 《남승 한영희 부채》, 《제5회 대한민국민화대전 학생부 특별전》, 《제2장, 경제 허물기》 등 등을 개최했다.

이러한 특별전 개최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 창출은 관람객의 재방문에 있어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한 《민화의 비상》은 8일간 약 6천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면서 한국민화뮤지엄과 강진군을 성공적으로 홍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 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민화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해당 공모사업이 현대민화 작가들 뿐 아니라 다양한 공예작가들 사이에서도 공정하고, 규모 있는 공모전으로 자리잡았다. 공모전 수상작이 강진군에 귀속되는 만큼,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공모전 진행을 통해 강진군의 수준 높은 작품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올해도 강진군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향유 기회의 증대를 위해 2020년도 공모사업 신청예산 총 2억여 원을 교부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민화뮤지엄 오석환 관장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흰 쥐띠 해를 맞이하여 더욱 힘차게 도약하여 강진을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목포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한다

2024년까지 지역민 24만 회복 목표로 대책 수립

목포시가 '살기 좋으면 찾아오는 도시'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시는 출산율 증가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현재의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인구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단기와 중장기 두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맞춤형 계획을 펼친다.

우선, 시는 올 해 인구 23만을 회복하고 2024년에는 24만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대양산단 기업유치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 대책을 수립한다. 공공기관, 기업체 근무자의 목표 정착을 위해 '우리 직장, 우리 주소 갖기' 운동을 시 공직자부터 우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일대학생 생활안정

자금 지원 확대(40만원→8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1인당 최대 110만원), 토박이 청년 만들기·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

중장기 전략은 관광산업, 수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3대 미래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시는 관광객증도시로서의 면모를 확대해간다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수산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계획대로 육성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면 인구유입이 뒤따를 것

로 전망한다.

이에 더해 유아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돌봄센터 운영, 고령층을 위한 생활개선 지원 및 일자리 알선,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편안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는 "살기 좋은 지역에는 당연히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쾌적한 환경조성, 빈틈없이 복지확대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구증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 지역 소상공인에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함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소상공인에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 8개 금융기관(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합의했다.

함평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군이 소상공인의 융자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첫 시행된 이 사업은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돼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지역소상공인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올해 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체별 최대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총 지원한도를 4억 6천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상향(260%) 조정했다.

최장 2년이었던 융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이 마감될 때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담 창구를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운영(일주일 중 1일)할 계획이라 소상공인의 사업신청 등의 편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제조·건설, 운수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한도조치를 한 후 오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061-320-173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사치·향락·오락업 등의 업종은 신청 제외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영암군,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가공품 출하장려금

영암군은 2020년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을 2월 21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봉감 과잉생산에 따른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수급 안정 및 가공품 생산 장려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품목은 출하내역에 따라 감 말뿔의 경우 kg당 2,000원을, 꺾감의 경우 1구당 200원을 지원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조도만두나무 육묘사업 MOU

진도군은 지난 13일 조도만두나무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진도군산림조합과 육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1993년 전남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처음 신종으로 보고 됐다.

조도면에서 처음 발견된 한국특산식물로 열매가 만두를 닮아 조도만두나무로 명명됐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조경수

1,000주를 육묘해 가로수와 공원수로 식재할 계획이다.

또 조도만두나무 관리를 위해 조도면 단대산, 심금산 등 자생지를 정비했으며, 향후 진도군농업기술센터와 임회면에도 관상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우리 군민의 특수한 유전자원을 보호·육성하고 관광 상품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조성용 기자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정직한 후보
2관	정직한 후보
3관	클로젯
4관	작은 아씨들
5관	남산의 부장들, 정직한 후보
6관	수퍼 소닉, 정직한 후보
7관	작은 아씨들
8관	클로젯, 원피스 스탬피드, 버즈 오브 프레이
9관	남산의 부장들, 히트맨
10관	클로젯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정직한 후보
2관	클로젯, 작은 아씨들, 버즈 오브 프레이, 원피스 스탬피드
3관	남산의 부장들, 작은 아씨들
4관	클로젯, 정직한 후보
5관	수퍼 소닉, 남산의 부장들
6관	클로젯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